

1.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調査研究計劃에 의거한 自體研究 報告書임.
2. 收錄된 內容은 國土統一院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北韓 및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基礎資料로 活用코자 한 것임.

# 金正一體制 登場과 經濟政策 展開 樣相

研究執筆 및 刊行責任 金 永 圭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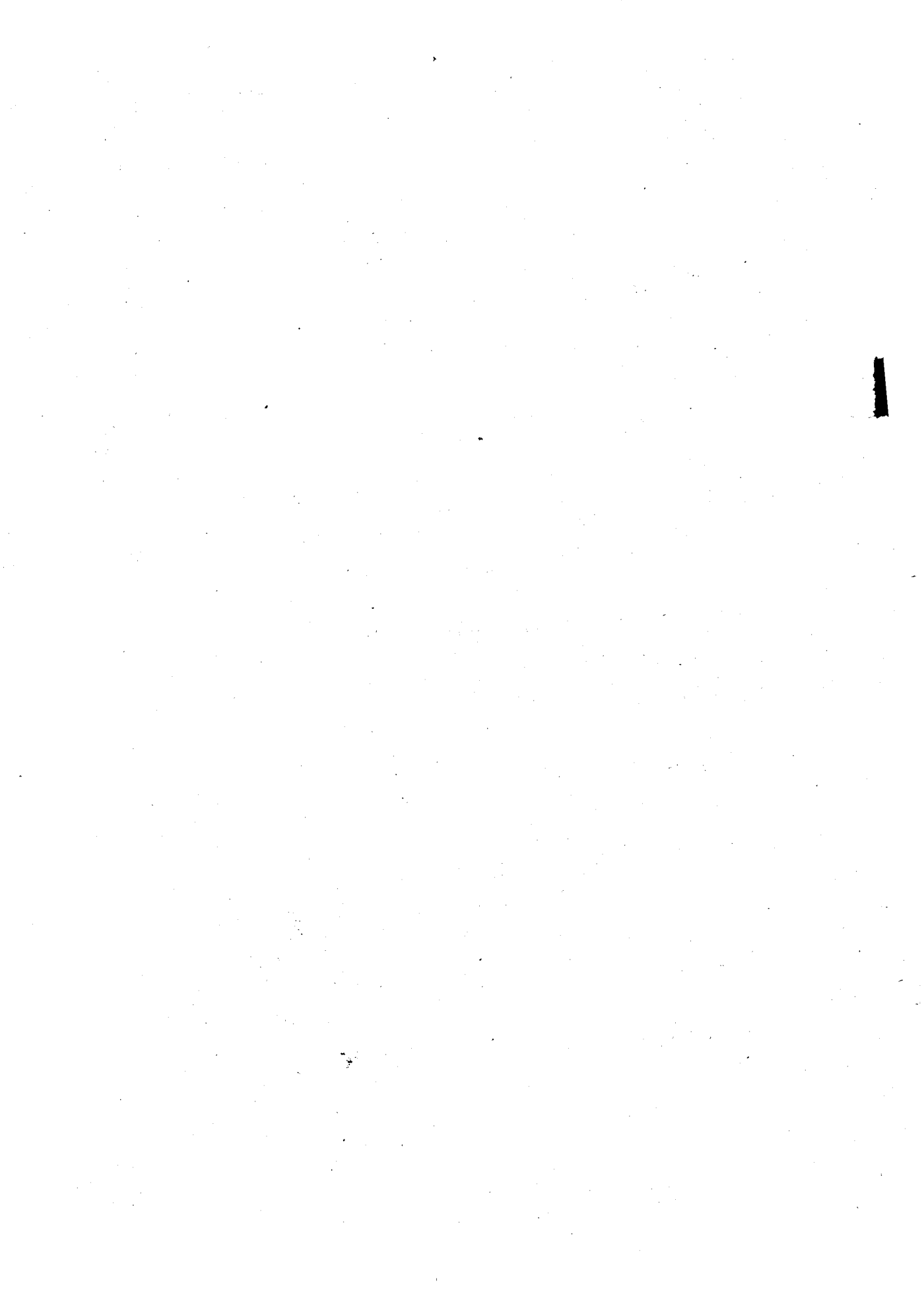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目 次

1. 北韓 經濟概況 .....	3
2. 北韓經濟의 構造的 特性 .....	7
가. 經濟體制 .....	7
나. 經濟開發戰略 .....	10
다. 當面經濟實態 .....	12
라.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問題點 .....	16
마. 當面 經濟問題에 대한 金正日의 見解 .....	18
3. 金正日 登場과 經濟政策의 變化樣相 .....	20
가. 70年代 經濟計劃 推進樣相 .....	20
나. 70年代 經濟政策 特徵 .....	23
4. 金正日體制的 經濟政策 .....	31
가. 金正日의 經濟觀 .....	31
나. 金正日의 經濟政策 .....	35
5. 北韓 經濟體制 및 經濟政策 變化展望 .....	42
가. 體制 改革面 .....	42
나. 經濟成長戰略 및 政策의 變化 .....	46



## 1. 北韓 經濟概況

1973年 9月 黨秘密會議에서 金正日 後繼問題가 學論된 이후부터 暗暗裡에 構築하기 시작했던 金正日 後繼體制가 1980年 6月 6次 黨大會를 契機로 表面化되었고 그후 金正일이 實際上的 最終 決裁 權者로 認定되자 北韓을 觀望하는 많은 사람들은 金正일의 登場으로 그 어떤 새로운 變化를 期待하여 보고자 했던 것이다.

더우기 70年代 이후 漫性的으로 沈滯되기 시작했던 北韓經濟가 80年代에 이르러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破境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金正일의 登場은 北韓經濟의 活路를 여는데 肯定的으로 作用할 것이라고 期待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期待는 北韓經濟의 變遷過程이나 當面한 現實을 깊이 觀察하면 北韓經濟政策 方向이 發展的으로 體質改善되거나 體制가 合理的으로 改革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徵候를 發見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北韓의 現 經濟難局은 그 根源이 經濟體制的 矛盾性和 政策의 不合理性 때문에 起因된 것인바 現 體制的 繼續維持는 經濟難局을 加速化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經濟體制的 改革이나 政策方向의 修正은 不可避할 것이라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의 現 經濟體制는 計劃과 管理를 中央 計劃當局이 掌握하고 있고 下部機關은 何等의 裁量權도 없이 執行만 할 뿐이다. 또한 모든 生産指標는 物量單位로만 算定되는 30年

代의 蘇聯에서 택했던 것보다 더한층 硬直되고 閉鎖的인 超中央集權的인 行政管理體系 ( Supper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를 維持하고 있어 生産을 向上시키고 質을 높일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勞働者들에 대한 物質的인 “인센티브”를 賦與함이 없이 繼續的인 社會主義 競爭運動만을 強要하고 있는 北韓當局의 處事는 必然的으로 生産增大보다는 勞働者의 不平不滿과 反體制的인 刺戟을 誘發하였고 그 結果는 清津, 新義州, 南浦를 비롯한 各地의 騷擾事態와 食糧暴動事件으로 連結되었다.

둘째, 지금까지 北韓은 新地方豫算制를 비롯한 地方經濟機構 強化, 消費品 價格體系의 一部 變化 등 體制緩和와 관련된 徵候가 있었고 消費品 및 日用品의 供給增大와 輕工業部門의 關心增大는 北韓이 지금까지 一貫해온 重工業優先政策을 緩和한 것이 아닌가 하는 觀測을 可能케 하였다.

北韓은 1973年부터 道, 郡級 行政單位의 獨自的 豫算編成機能을 賦與한 新地方豫算制를 實施, 輕工業製品의 地域需要自給策을 講究하였고 住民의 實質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1978年 12月 12日 新地方豫算制度를 法制化하는 등 지금까지 中央計劃當局에만 局限되었던 權限과 責任을 地方行政機關에 移讓하는 措置를 취하였고 1981年 9月에는 道(直轄市) 行政委員會를 經濟指導委員會로 改編, 中央部署의 閣僚級 人物 등을 大學 地方으로 보내 地方經濟機構를 擴大, 強化했던 것이다.

세째,北韓當局도 최근에 이르러 對外經濟協力の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고 輸出增大를 主要 經濟政策으로 提示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北韓當局은 1977年以後 지난 해까지 金日成 新年辭나 豫決算報告 또 6次 黨大會報告를 통해 輸出增大策으로 輸出商品 優先生産, 輸出商品의 多樣化, 包裝의 質提提高, 迅速한 輸送 등을 強調해 왔고 西方諸國과의 合作投資 誘致를 試圖하는 한편, 對西方과의 交易, 특히 日本과의 交易이 急激히 增大되고 있다는 사실은 北韓의 閉鎖體制에 어떤 變化가 있을 것으로 豫見하기에 충분하다.

네째, 金正日에 대한 상세한 情報가 알려지지 않은 狀態에서 大部分의 觀望者들은 金正日 後繼問題가 學論되고 있을 때 金正日의 成長過程이나 教育水準, 東歐圈 留學經歷 등 社會的 背景을 勘案할 때 經濟政策에서 合理性을 追求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었다.

다섯째, 中共의 급격한 體制變化는 北韓經濟體制에 상당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期待되었다.

理念 및 體制面에서 상당한 類似性을 維持해온 中共이 1976年 9月 9日 毛澤東이 死亡하고 새로 登場한 新指導體制는 西紀 2000년까지 中共을 世界 強大國의 位置에 끌어 올리겠다는 野心的인 計劃下에 4大現代化를 標榜하고 企業의 利潤保障, 企業의 獨自性賦與, 市場機能 復活, 企業의 外換保有 許容, 보너스支給 등 資本主義 經營要素를 導入하고 있고 小規模 個人企業 經營權, 個人間的 生産競爭, 物質的 誘因, 能力差等制 등을 認定함으로써 國家豫算收入을 從前에 비해 7.4% 높였고 住民들의 實質所得도 크게 向上시키고 있

다.

이와 같은 中共經濟體制的 急激한 變化는 地政學的으로나 歷史的으로 또는 文化와 理念의 側面에서 가장 깊은 聯關을 가지고 있는 北韓에 어떤 形態로든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普遍的인 見解였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徵候를 접하게 됨에 따라 一部 北韓 觀測者들은 80年代의 北韓經濟 展望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樂觀하는가 하면 金正日의 登場을 契機로 北韓經濟體制가 一部 東歐圈에서 實施하고 있는 市場補完型 (Supplemented Market Model)이나 오늘날의 中共처럼 實用主義路線으로까지 急變할 수 있을 것으로 豫測하기도 하였다.

北韓研究家들에 의해 論議되어 온 北韓經濟의 變化方向을 整理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 첫째, 量產體制에서 質產體制로의 轉換
- 둘째, 勞動生産性的 提高를 위한 各種 "인센티브" 制度의 導入
- 셋째, 制限된 範圍에서나마 市場機能의 復活
- 넷째, 中央經濟機能이 地方機關으로 大幅 移管
- 다섯째, 價格機能에 있어서의 變化
- 여섯째, 重工業優先政策의 止揚 및 이에 따른 輕工業部門 投資 增大
- 일곱째, 開放經濟로의 指向이 不可避해짐에 따라 對西方 經濟協力 增大



여덟째, “테크노크라트”의 重用 및 能力主義의 採擇 등이다.

그러나 金正日의 登場과 이에 따라 北韓經濟가 急進的으로 變化될 것으로 豫測하는 이상과 같은 見解는 北韓經濟의 現實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期待事項이라 할 수 있고 北韓住民이 겪고있는 苦痛을 共感해 보고자 하는 民族的 感情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北韓經濟의 構造的 特性

### 가. 經濟體制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屬性을 理解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北韓의 經濟體制에 대한 理解가 容易하지 않을 것이다. 간혹 東歐諸國이나 蘇聯의 經濟制度를 見聞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北韓이라는 獨特한 經濟體制를 理解하는데는 많은 偏見과 誤謬를 범하고 있음을 본다.

北韓의 經濟體制를 理解하는 가장 쉬운 方法은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와의 比較에 의해서이다.

一般的으로 資本主義 經濟體制란 私有財産의 基盤위에서 “價格機能”(Price Mechanism)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資源이 配分되는 制度를 말한다.

따라서 個人的 合理的인 利潤追求를 經濟活動의 基本으로 삼고있

기 때문에 國民經濟에 있어서 投資와 生産活動의 主體는 民間企業이고 經濟活動은 市場機構를 통한 自由競爭原理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일체 認定하지 않고 있는데다 모든 經濟活動 역시 中央集權的 計劃下에 實施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에서는 職業選擇, 居住移轉 뿐 아니라 모든 經濟的 自由가 中央計劃當局에 의해 留保되어 있고 個個人的 發展의 性向은 制度的으로 制限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經濟規模가 작고 좁은 領土와 人口를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一國家의 모든 經濟活動을 中央當局의 一律的인 計劃下에 運營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며 많은 不條理와 難題들을 隨伴하기 마련이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經濟構造가 複雜多樣해지고 高度의 分業化와 集約化가 同時에 일어나고 있는 經濟社會에서는 經濟規模의 大小를 막론하고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는 實現不可能한 것이다.

“마르크스”理論을 바탕으로 計劃經濟를 追求했던 蘇聯이나 東歐共產諸國도 1960年을 前後하여 計劃經濟體制的 矛盾性을 認知, 資本主義體制的 長點을 加味한 修正主義路線으로 改革하였고 北韓과 理念 및 體制面에서 同質性을 堅持해 왔던 中共도 毛澤東의 死亡을 契機로 70年代 後半부터는 急進的인 實用主義路線으로 變化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共產圈內에서도 유독 北韓만이 自體內部로 부터의 漸增하는 變化要求와 여타 共產諸國으로 부터의 變化趨勢를 굳이 外面하면서까지 한층 硬直된 計劃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것은 史上 類

例없는 1人獨裁와 父子世襲體制를 維持하기 위한 불가피한 措置인 것이다. 北韓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어떻게 固守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論議는 차치하고 北韓이 이처럼 硬直된 體制를 固守 하므로써 야기시키고 있는 問題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의 經濟活動 主體가 黨과 政權機關이므로 모든 勞動者, 農民은 한사람의 賃金勞動者에 불과하다.

따라서 資本主義 社會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勞動者들의 自發的이고 積極的인 參與와 創意力 發揮는 있을 수 없고 要領主義, 適當主義, 機會主義, 自己能力 過小評價 傾向 등이 manifestations 되어 있다.

또 政權機關이 經濟活動의 主體이기 때문에 政權機關에서 모든 計劃을 樹立하고 일일이 監督, 統制해야 하는 바 이러한 計劃業務를 위해 機構를 지나치게 細分化시켜야 할 뿐아니라 많은 人力을 動員해야 하는 浪費現象, 또 計劃者와 執行者間의 葛藤, 業務上的 乖離 現象 등을 誘發시킬 소지를 內包하고 있다.

1983年 11月 現在 北韓의 政權機關部署 34個中 29個 部署가 經濟部署라는 데에는 北韓 計劃經濟體制的 中央集權 정도를 反映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모든 生産手段은 國有(全人民的 所有) 또는 共有(協同的 所有)化 되어있고 私有財産이라고는 個人携帶品 및 消費品에 局限되어 있으므로 個人的 欲求를 充足시켜 줄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즉 北韓에서는 勞動者, 農民이 熱과 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窮極的인 目標, 다시 말해 좀더 편하고자 하는 目標, 좀더 잘 살

아 보자는 目標 自體를 認定해 주지 않으므로 當局이 비록 政治이  
데올로기에 呼訴하는 끊임없는 勞力動員과 技術革新을 부르짖지만 生  
産性의 向上이란 源泉的으로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所有制度에서 起因된 生産性 低落現象을 脫皮하기 위해 北韓은 소  
위 社會主義 競爭運動이라는 것을 創案, 勞動者, 農民의 自意的이고  
自發的인 勞力競爭을 誘導하고 있지만 物質的 補償制度가 마련되지  
않는 狀態에서는 “住民酷使”라는 否定的 成果 이상은 기할 수 없  
는 것이다.

세째, 資源配分 機能은 自由競爭原則에 따른 市場機能이 아닌 中  
央集權的 計劃機能에 의하고 있어 住民들의 選好感情이나 需要供  
給의 基本原則이 無視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는 住民들이 사고싶은 물건, 사고싶은 양을  
自由로이 결정할 수 없고 中央計劃 當局에서 強要하는 물건을 사  
야하거나 아예 자기 慾求를 스스로 抑制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歸順者들의 證言에 의하면 人間의 基本生活에 必要한 生必品마저  
자기 자신이 選擇할 수 없는 北韓에서 住民들이 겪고 있는 不便과  
內在된 不滿은 우리의 상상을 超越하고 있다.

#### 나. 經濟開發戰略

全世界 經濟가 하나의 틈니바퀴에서 돌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國  
際經濟下에서는 비록 부존자원면에서는 富國으로 자리하고 技術水準

面에서는 先進國으로 指稱된다 하더라도 對外經濟 協力は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더우기 國土가 좁고 有用資源이 貧弱한 우리의 立場에서는 海外의 資源과 資本 및 技術의 導入與否가 經濟發展의 關鍵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韓國은 60年代 初부터 外向性 開發戰略을 樹立, 對外貿易의 擴大와 效率的인 對外經濟 協力を 推進해 왔으며 그 結果는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持續的인 高度經濟成長을 記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北韓은 스탈린時代에 蘇聯이 追求했던 閉鎖的인 아우타르키 (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다.

아우타르키 經濟體制란 自給自足的인 國民經濟 또는 블록經濟로 불리우는 經濟體制이나 北韓은 스탈린式的 "一國家 社會主義" 理論을 教條的으로 模倣한 것이다.

北韓은 1966年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인 問題는 自力更生の 原則下에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라고 宣言하므로서 孤立主義的인 閉鎖政策을 推進하는 명분을 내세웠고 그후 줄곧 閉鎖政策을 堅持해 오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自力更生" 原則을 強調한다고 해서 결코 "自立經濟"를 實現시킬 수는 없었고 海外로 부터의 經濟依存을 전혀 排除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北韓이 自力更生原則을 부르짖음으로써 中·蘇를 비롯한 共

産諸國으로 부터 받던 莫大한 量의 援助만 削減되었고 貿易赤字의 幅만 增大시키는 結果를 招來했으며 國際社會에서 크게 非難받았던 外債 波動과 外交官 密輸行爲를 不可避하게 했던 것이다.

工業化 戰略에 있어서도 韓國은 社會間接資本과 農業 및 輕工業의 基盤위에서 重工業을 育成하는 戰略을 擇하였으나 北韓은 처음 부터 무리한 重工業 優先政策을 追求, 輕工業과 住民福祉問題를 政策的으로 度外視하였다.

長期間에 걸친 重工業 優先政策은 軍需産業을 비롯한 일부 機械 工業部門의 成果를 除外하고는 重工業 自體의 發展에도 寄與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産業과 産業間, 部門과 部門間의 심한 不均衡現象과 産業全般에 걸친 落後性を 露呈하는 結果를 招來했다.

또 北韓은 經濟政策의 窮極目標을 赤化統一을 위한 戰爭力量 및 革命力量 強化에 두고 있으므로 國防建設을 위해서는 經濟建設을 留保하거나 中斷할 수도 있다는 論理를 展開하고 있고 “南朝鮮 解放”이라는 目標가 達成될 때 까지는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主張下에 軍事費를 GNP의 24% 水準으로 끌어 올리고 備蓄米, 愛國米 등의 名分으로 住民들의 食生活마저 統制하고 있다.

#### 다. 當面 經濟實態

##### (1) 北韓의 食糧事情

北韓은 83年度 金日成 新年辭와 最高人民會議의 豫決算報

畝를 통해 82年度 알곡生産량은 950萬屯에 달했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北韓이 發表하는 “알곡”은 粗穀概念이고 食糧統計 作成이 立苗상태에서 이루어지며 國家에서 指定한 計劃目標 達成에 급급한 나머지 一般的으로 過大評價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北韓이 發表한 알곡生産량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를 一般的인 食糧統計 概念으로 換算하기 위해서는 立苗減耗率 20%, 精穀換算時 減少率 30%, 統計發表値와 實生産 平均値間의 誤差 20%를 差減해야 한다.

그러므로 82年 北韓이 發表한 알곡 950萬屯은 정곡으로 426萬屯 정도인 바, 이는 北韓의 83年度 北韓 全住民 淸食용 약 420萬屯(人口 1人當 600g 基準), 飼料用, 加工用 約 100萬屯, 種子用 및 其他 25萬屯 등 總 食糧需要量 545萬屯에 비해 約 120萬屯의 절대량이 부족한 實情이다.

이처럼 食糧生産 自體가 需要量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北韓은 年間 20-30萬屯의 쌀을 外貨獲得을 위해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소련 등지에 政策 輸出하고 있고 戰爭備蓄米 名分으로 年間 50萬屯 程度 備蓄하고 있어 食糧難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

이러한 實情임에도 불구하고 北韓當局은 부족한 食糧을 “配給制”라는 食糧統制 裝置를 통해 配給量을 1日 1人當 100g씩 줄이고 있고 쌀과 雜穀의 配給比率을 종전의 4:6에서 3:7 또는 2:8로 늘이는 등 非人道的인 措置를 취하고 있다.

## (2) 에너지 事情

北韓의 에너지 消費構成은 石炭이 69%를 차지하고 있고  
水力發電과 石油가 각각 13%, 薪炭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石炭에 依存하고 있는 理由는  
石炭 賦存量이 다소 많다는데 있지만은 그보다는 가장 效率的인 에  
너지源인 石油나 電力은 資本不足, 技術不足, 國際的 信用失墜 등의  
諸般要因이 複合되어 利用이 어렵기 때문이다.

北韓이 加重되는 에너지難을 解決하기 위해 今年度 經濟最重點 課  
業으로 石炭增産을 提示하고 있으나 落後된 採炭技術, 裝備 등으로  
기대했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生産과 需要의 隔差는 繼續  
커지기만 한다.

더우기 北韓의 産業施設은 前近代的인 舊式 시스템이고 裝備 역  
시 壽命이 다된 낡은 것들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消費나 浪費가 많  
고 化學工業도 大部分이 石炭系列 化學이기 때문에 에너지難을 더  
욱 加重시키는 根源이 되고 있다.

## (3) 輸送實態

北韓은 험준한 산악이 많은 地形地勢와 東西海岸이 分離되어  
있는 關係로 輸送問題는 과다한 投資規模, 技術難題, 工期의 長期化  
등 根源的으로 많은 難題를 안고 있다.

또 北韓의 經濟政策 立案者들은 懷妊期間이 길고 投資規模에 비  
해 成果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輸送의 本質 때문에 政策的으로



이 部門에 대한 投資를 抑制해 왔다.

이 結果 北韓의 輸送은 87% (貨物 90%, 旅客 60%)를 日帝 時에 建設한 單線 鐵道에 依存하고 있고 나머지는 自動車와 船舶, 3化輸送 手段 (파이프라인, 케이블카, 벨트콘베어)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지금 北韓은 慢性的인 輸送의 難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輸送體系의 強化, 輸送 從事者들의 思想武裝 등 非投資 部門에 注力하고 있고 投資事業은 鐵道の 電氣化, 重量레일화 등 既存 鐵道 개수에만 集中하고, 새로운 高速道路 建設이나 鐵道 建設, 港灣 建設 등에는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根本적인 輸送難 妥結은 어려운 實情이다.

#### (4) 外債問題

北韓은 82年末 現在 外債規模가 34.6 億弗에 이르고 있는 바, 이중 약 10 億弗은 소련, 中共 등 共產圈에 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餘億弗은 西方諸國으로 부터 진 것이다.

北韓의 外債規模 自體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外債償還 負擔率이 높아 제기간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現象은 閉鎖體制를 고집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또 北韓이 外債波動을 불러일으킨 原因은 과다한 軍事費 支出, 貿易赤字 累增, 國際的 信用失墜, 金日成 宣傳을 위한 과다한 外貨浪費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北韓은 累增되는 外債의 元金償還은 커녕 利子마저 支拂에 支拂하지 못해 經濟使節團을 關係國에 派遣 支拂延期를 交渉하고 있는 實情이다.

#### (5) 技術問題

北韓이 “自力更生”을 經濟開發의 基本原則으로 내세우고 北韓政權 樹立以後 지금까지 閉鎖經濟體制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對外經濟協力, 특히 對外技術 協力이나 先進技術 導入이 制度的으로 制限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結果 北韓의 技術水準은 모든 產業分野에서 30年 또는 50年前의 技術水準에 停滯되어 있고 自體에서 開發하고 있는 技術 역시 前近代의인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지금 北韓은 100萬名の 엘리트 養成을 目標로 大衆技術 革新運動을 展開하고 있어 一般勞動者들의 平均 技術水準은 다소 向上되고 있으나 最新技術 開發이나 尖端技術 開發과는 거리가 먼 實情에 처해 있다.

#### 라.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問題點

北韓의 計劃經濟 體制가 안고 있는 構造的인 問題點은 먼저 黨 官僚 (Red)와 經濟官僚 (Expert)間的 摩擦, 計劃部署와 執行部署間的 알력으로 生産이 沈滯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點을 解消시키기 위해 70年代 初부터 金正日의 主

導下에 3大革命小組를 組織, 各級 生産現場에 派遣하고 있으나 計劃經濟體制의 構造的 矛盾 除去는 커녕 下部 生産組織의 反撥만 사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問題點만 惹起시켰다 하겠다.

또 北韓의 經濟體制는 金日成이 數次 言及한 바와 같이 “要領主義”, “官僚主義”, “機會主義” 風潮를 만연시켜 각 개인은 개인데로, 機關은 機關데로 자신의 能力을 過小評價하려는가 하면 自律性和 創意性を 減退시키는 現象을 빚고 있으며 總人口의 4.2%에 달하는 過다한 現役軍인과 莫大한 豫備兵力維持를 위해 世界에서 가장 높은 GNP 對 軍事費 負擔比率를 維持하고 있어 經濟發展을 爲해 投資되어야 할 豫算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生産基盤面에서의 問題點은 既存 基幹産業의 生産시스템 및 施設裝備가 대부분 30餘年前의 舊型이고 그나마도 낡은 것이므로 過다한 人力消耗(人力依存型), 過다한 에너지消耗(에너지多消費型) 過다한 原料, 原資材消耗라는 3多 消耗現象을 빚고 있으며 生産品의 質的 向上을 圖謀할 수 없는 限界에 直面해 있다.

또 北韓은 有用 地下資源面에서 韓國에 비해 다소 有利하기는 하나 窮極的으로는 資源 貧國에 속하고 石油, 역청탄과 같은 고에너지 資源, 原木, 고무, 면화, 원모, 원당 등 主要 原資材 등도 전혀 生産되고 있지않아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한 原料의 自給自足이 不可能한 實情이다. 最近 北韓은 輸入에 依存해야만 하는 原料, 原資材의 代替品 開發에 注力하거나 原料供給 體系의 改編을 試圖, 製鐵,

製鍊을 코크스탄의 代替品으로 無煙炭을 利用하고 있고 自動車 燃料을 木炭으로 代替하고 있으나 經濟的 效率性面에서는 輸入依存보다 수십배의 마이너스效果를 얻고 있다.

한편 北韓은 낡고 舊型인 生産施設을 産業 TV化, 遠隔調整化, 自動化, 機械化 등 現代化시키는데 注力하고 있으나 이에 必要한 資本, 技術의 부족으로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고 有害勞動과 高熱勞動을 없애기 위한 環境改善에도 努力하고 있으나 이 역시 資本, 技術 등의 問題가 解決되지 않아 實效를 얻지 못하고 있다.

#### 다. 當面 經濟問題에 대한 金正日의 見解

北韓經濟가 長期間에 걸쳐 沈滯되어 왔고 現時點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困境에 처해 있다는 事實에 대해 金正日是 充分히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이 現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深刻한 問題中 가장 시급히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部門은 住民들의 日常生活과 關聯된 “먹는 問題”, “입는 問題”, “住宅問題” 등 衣食住 問題라고 보고 있다. 金正日의 이와 같은 見解를 뒷받침해 주는 資料는 80年代 以後, 다시 말해 6次 黨大會以後 開催된 8차례의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 먹는問題 4回, 입는問題 3回 등을 討議主題로 내세웠고 남청진, 신안주, 신단천 新市街地 造成, 平壤市內 창광거리, 문수거리 일대의 高層아파트團地 造成 등 住宅問題에 많은

關心을 賦與하고 있다는 點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金正日은 4大 自然改造事業과 織物 15億<sup>m</sup>고지 占領 目標을 當面 經濟政策의 兩大 核心課業으로 提示하고 있는 바 이 역시 食糧增産 및 織物增産을 위한 金正日의 政策方向으로 보여진다.

金正日이 이처럼 衣食住 問題를 當面 經濟政策의 最優先 課題로 提示하고 있는 것은 經濟破綻에서 惹起된 住民들의 不平不滿이 極度에 달해 있고 現實적으로 1977年6月 용양광산 食糧暴動을 비롯하여 淸津一圓 暴動事件, 新義州市 暴動事件 등 散發的인 住民蜂起 事態가 發生하고 있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보인다.

어쨌든 金正日은 金日成에 비해 經濟運營을 다소 合理的으로 推進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바, 그 徵候로써 前例없이 頻繁한 觀光 宣傳事業 展開, 비록 對內外 宣傳波及 效果를 노린 것이기는 하지만 大規模 厚生福祉施設 建設, 都市 및 市街地 整備, 觀光休養地 增設 등 住民福祉生活에 關心을 두고 있으며 現代的 感覺과 知識을 가진 新進 經濟人物을 各 經濟要所에 配置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金正日 역시 자기의 政治權力 基盤이 確固히 構築되지 않은 現時點에서는 金日成에 의해 構築된 體制와 秩序를 踏襲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金日成보다 더 一層 強度질은 體制의 경화가 必要하기 때문에 經濟體制의 改革이나 政策의 大幅修正은 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80年代 以後 金正一의 主導下에 建設된 主體思想塔, 개선문과 같은 이상화 구조물과 각지의 革命戰蹟地, 史蹟地, 革命博物館 建設 등에 大規模 投資를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 그 例인 것이다.

### 3. 金正日 登場과 北韓經濟政策의 變化樣相

#### 가. 70年代 經濟計劃 推進樣相

70年代 以後 北韓이 推進했거나 推進中에 있는 經濟計劃은 1971년부터 1977年間に 實施된 6個年 經濟計劃과 1978年着手 1984年에 끝나기로 되어있는 第2次 7個年 經濟計劃이다.

또 北韓은 以上の 2大 定期經濟計劃 外에도 두번에 걸친 不定期 長期展望計劃을 發表하고 있는데 하나는 1974年2月 黨 5期8次 全 員會議에서 決議한 次期展望 10大 目標이고 다른 하나는 1980年 10月 6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이 提示한 80年代 10大 展望目標이다.

北韓이 技術革命을 促進하고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공고화하며 勤勞者를 힘든 勞動에서 解放시킨다는 名分을 내세우고 70年度 對比 國民所得 1.8倍, 工業總生産 2.2倍, 알곡生産量 700 - 750만톤 등의 目標을 提示했던 6個年 經濟計劃은 1975年 8月末을 期해 1年 4個月 早期完遂 되었다고 發表하였으나 1976年은 整

備期間, 1977年은 次期計劃을 위한 準備期間이라는 名分으로 數次 經濟計劃의 부진한 部門을 補完했기 때문에 事實上 6個年計劃을 1年 延長하여 7個年計劃으로 끝난 것이다.

6個年 經濟計劃 着手當時만 하더라도 北韓은 60年代에 推進했던 7個年 經濟計劃의 問題點을 是正하고 北韓經濟의 體質改善, 現代化 등을 推進할 決意로 西方諸國의 先進技術과 플랜트를 大量 導入하기 始作했으나 北韓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矛盾과 生産滯減現狀, 北韓의 産業基盤이 지니고 있는 難題, 無計劃的인 플랜트 導入에 따른 外債問題 대두 등으로 計劃대로의 推進이 어렵게 되자 1973年을 기해 計劃方向을 修正, 60年代에 推進했던 7個年計劃과 같이 軍事優位 經濟計劃 方向으로 되돌아갔다.

1978年부터 實施된 第2次 7個年 經濟計劃은 人民經濟의 主體化, 科學化를 促進하고 지금까지 構築해온 社會主義 經濟土臺를 더욱 強化하며 住民生活을 劃期的으로 向上시킨다는 目標下에 出發하였으나 計劃完了 1年을 앞둔 現在 全般的으로 計劃目標의 42% 水準에 머물고 있고, 1980年, 1981年 등 2個年에 걸쳐 前例없는 不振한 記錄을 보이고 있다. 第2次 7個年 經濟計劃이 이처럼 不振하게된 直接的인 原因은 對內外 資本調達이 한계에 봉착, 더 이상의 新規 投資事業을 推進할 수 없는 立場인데다 既存施設, 裝備의 老朽化, 廢品化가 加速化되고 原料, 燃料의 不足現象이 重疊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3年 金正日 登場後 10餘年間に 推進된 以上과 같은 두건의 經濟計劃 推進樣相을 볼 때 하등의 새로운 점이나 發展的 側面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60年代 樣相으로, 新規 投資面이나 住民 福祉面에서 보면 오히려 60年代보다 더 한층 後退된 經濟計劃을 推進해 왔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北韓이 70年代以後 經濟政策을 이런 식으로 推進할 수 밖에 없었던 背景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現象이 복합된 것으로 보여진다.

60年代 까지만 해도 北韓經濟 開發의 相當한 部門을 차지했던 中·蘇의 援助가 70年代 以後에는 大幅 削減되었고 國際社會에서의 信用度 下落은 海外資本의 導入을 어렵게 하였으며 對內 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矛盾과 問題點들이 漸增되는 등의 經濟內的인 問題外에도 金正日 後繼體制 基盤構築에 따른 政治, 思想的 優先目標, GNP의 24%에 달하는 過다한 軍事費支出 때문에 經濟建設과 住民福祉 問題에 대한 政策은 차선의 目標로 取扱되었다는 事實이 北韓의 經濟計劃을 失敗로 이끈 重要原因이 되는 것이다.

如何든 金正日 登場後의 北韓經濟計劃 推進經過를 볼 때 金正日是 北韓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現實的인 對策을 樹立하지 않았고 經濟 外的인 資本浪費로 經濟部門의 投資가 줄어들었음이 分明하며 結局 金正日이 經濟活性化를 위한 意思가 있었다 하더라도 對內外的인 與件이 이를 受諾해주지 않았다고도 보여진다.



## 나. 70年代以後의 經濟政策 特徵

70年代以後 北韓의 經濟政策上에 나타난 特徵을 北韓經濟의 合理的 改善이라는 側面과 結付시켜 본다면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이 同時에 나타나고 있고 이들 두側面이 相互 비슷한 比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經濟를 보다 合理的인 方向으로 改善시킬 것으로 보이는 側面으로서는 ① 新地方豫算制度의 實施 ② 對外經濟 協力, 특히 對西方諸國과의 經濟協力 必要性 強調 ③ 大規模 厚生福祉, 文化施設 構築 ④ 金融 및 商業機能 擴大 ⑤ 觀光事業에 대한 關心 등이고, 北韓經濟의 合理的 改善은 커녕 現體制의 繼續 維持 또는 보다 硬化 可能性으로 보이는 側面으로서는 ① 食糧配給量 減縮 ② 軍事優位 政策의 固守 ③ 勞動者·農民에 대한 思想性, 政治性 強調 ④ 政治宣傳 部門에 대한 資金浪費 ⑤ 外債波動 및 外交官 密輸行爲 ⑥ 住民生活 統制強化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北韓經濟의 合理的 改善으로 보이는 肯定的 部門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新地方豫算制度의 實施

北韓은 1973年度부터 金日成의 指示에 의거 新地方 豫算制를 實施하고 있는바 이는 “地方行政의 自主性を 높이고 地方의 힘과 人員을 動員, 獨自의인 事業을 推進할 수 있는 豫算을 編成하는 制

度”라고 說明하고 있다.

北韓이 이러한 新地方豫算制度를 施行하게 된 것은 中央豫算(北韓은 國家豫算이라 稱함)規模가 膨大해지고 産業이 다양화 해짐에 따라 豫算編成 및 執行上의 애로점이 增大되고 있고 中央計劃 當局으로서 는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地方産業, 세소산업의 落後로 住民消費生活이 날로 乏迫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新地方豫算制度의 實施目的은 地方의 遊休資源을 最大限 活用하고 勞動力의 最大動員으로 地域社會 發展과 住民 消費生活을 實質的으로 向上시키자는데 있다.

現在 推進하고 있는 主要 地方豫算事業은 日用品, 食料品, 家內手工藝品 등의 生産과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식당 등 便宜奉仕 施設의 建設 및 運營, 산열매, 산나물, 들깨잎, 호박, 고추잎 등의 채집, 약초재배, 폐품 및 고철 蒐集, 小規模 土地開墾 등이다.

## (2) 對外經濟 協力強化

北韓도 最近에 이르러 對外經濟協力の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고 輸出增大를 主要 經濟施策으로 提示한 바 있다. 즉 北韓當局은 1977年以後 1981년까지 金日成 新年辭나 豫決算 報告書를 통해 輸出增大策으로 輸出商品 優先生産, 輸出商品의 多樣化, 包裝의 質 提高, 迅速한 輸送을 強調해 왔고 西方과의 交易 특히 日本과의 交易에 큰 關心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金日成은 1980年 10月 6次 黨大會의 報告를 통해 “現時期

우리나라 經濟發展에서 나서는 重要한 問題의 하나는 對外貿易을 빨리 發展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經濟規模가 비할바 없이 커지고 經濟部門들이 매우 다양해진 우리나라의 現實은 對外貿易을 擴大 發展시킬 것을 要求하고 있다."고 하였고 輸出增大策으로 ① 世界市場에서 需要가 높은 물건을 積極 輸出 ② 모든 部門에서 輸出源泉 積極 開發 ③ 輸出商品 生産增大 등을 지시, 80年代末에 가서는 1980年度 輸出額보다 4.2倍 높여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또 1983年11月29日부터 開催된 勞動黨 6期8次 全員會議에서도 "對外貿易의 幅을 넓히고 貿易機關들의 役割을 높이는 同時에 輸出商品을 增産해야 한다"고 하는 등 對外貿易의 必要性을 거듭 強調하고 있다.

### (3) 大規模 厚生, 福祉, 文化施設 構築

金正日 登場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現狀은 内幕이야 어찌되었던간에 平壤市를 비롯한 主要都市에 高층아파트 建設을 비롯하여 大規模 文化施設, 厚生福祉施設을 建設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年을 前後하여 建設된 主要 施設物은 金日成의 死後 무덤까지 마련했다는 人民大學習堂을 비롯, 인민문화궁전, 2.8문화궁전, 평양산원, 평양제1백화점, 창광원, 병상관, 청류관 등 文化福祉施設과 만경대유회장, 대성산유원지, 묘향산휴양지 등 후생 위락시설, 주체사상탑, 개선문, 國際親善展覽館, 各地 革命史蹟地 및 史蹟館 建設 등 金日成 家系

偶像化 構造物 등이다. 北韓이 內部的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政策的으로 長期間에 걸친 이와 같은 外形的 發展을 推進해온 結果 다음과 같은 成果 즉, 肯定的인 評價를 얻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 平壤市 一圓의 都市整備 및 交通施設은 70年代 初에 비해 현저히 發展되었다.

(나) 平壤 및 主要地域에 厚生福祉施設, 文化施設, 保健衛生 施設物이 현저히 增加되었다.

(다) 外國人을 對象으로 하는 宿泊施設, 위락시설이 增加되었으며 어느 정도 現代化되었다.

(라) 主要觀光, 休養地 開發이 進陟되었다.

(마) 住宅建設이 活潑히 進行되었으며 質的으로 改善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外形的 發展相을 좀더 깊이 觀察해 보면, 즉 否定的인 側面에서 評價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平壤市를 비롯한 主要地域은 外國人 來往地域에 한해 優先的으로 整備, 補完된 것이자 그外 地域은 70年代 初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

(나) 大規模 文化·福祉施設에 대한 一般住民의 利用이 거의 없고 순전히 宣傳的인 次元에서만 利用되고 있다.

(다) 住宅은 外部만 現代化되고 內部는 별다른 향상이 없다.

(라) 平壤地下鐵은 平壤市內 交通難 解消라는 側面과는 無關하고,

순전히 軍事的인 目的으로 建設되었다.

(마) 觀光休養地와 革命史蹟地 建設은 觀光事業과는 無關하고, 金日成·金正日 偶像化와 關聯된다.

#### (4) 商業 및 金融機能活性化

北韓은 1978年 12月 全國 財政 및 金融機關 熱誠者會議를 開催하고 金融機能 役割을 높일데 대해 強調하였고 80年代에 이르러서는 商業機能을 擴大 強化하고 있는 바, 그 代表的인 것으로 종전까지 人民奉仕委員會의 內部部署로 存續해오던 商業部 機能을 83年 9月을 기해 크게 強化하고 있어 商業部가 獨立된 政務院의 1個部署로 昇格된 것이 아닌가 하는 推測마저 자아내게 한다.

北韓이 金融機關 및 商業機能을 強化하게 된 것은 金融 및 商業의 活性化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같은 措置는 消費商品의 供給增大, 商品의 多樣化 등 住民福祉生活과 關聯되기 때문에 住民生活 向上에 肯定的으로 作用할 것이다.

#### (5) 觀光事業 推進

北韓은 最近 金강산, 묘향산, 백두산 一帶를 觀光地로 開發, 外國人에게 公開하고 있고 호텔 및 여관시설의 增設 및 高級化를 기하고 있으며 北韓의 觀光地域 및 文化遺蹟을 소개하는 영화를 제작, 海外에 전파하는 등 觀光事業에 關心을 높이고 있다.

다음 否定的인 側面에서 살펴본 北韓經濟政策의 特徵을 보다 具

體的으로 論述하면 다음과 같다.

(1) 食糧配給量 減縮 및 統制 強化

北韓에 있어서는 協同農場員을 除外(事實上은 配給制와 차이 없음)하고는 全住民이 例外없이 食糧配給制라는 統制下에서 食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北韓當局이 食糧配給制를 계속 固守하고 있는 것은 “일하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名分下에 勞力動員을 極大化하기 위한 手段이며 住民의 不平不滿과 社會逸脫을 防止하기 위한 統制手段이고 國家의 資源을 國家政策 目標에 最大限 利用하려는 底意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食糧配給制는 지난 50年代나 最近의 80年代나 하등의 變化가 없고 오히려 食糧配給 基準量에 있어서는 더욱 減少시킨 現狀마저 빚고있어 다른 共產諸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食糧配給制의 合理的 改革과는 正反對로 食糧配給制의 硬化 傾向을 보이고 있다.

實例를 들면 지난 70年代 初에 勞動者 1人 1日 食糧配給量에서 100g씩 減縮시키더니 80年代를 前後하여 또다시 100g씩 減縮시켜 一般勞動者의 1日 配給量이 600g 水準에도 未達되는 데다 쌀과 잡곡의 比率도 종전의 쌀 4對 잡곡 6의 比率에서 쌀 3, 雜곡 7의 比率로 雜곡이 늘어났으며 무단결근, 무단지각, 早退時의 食糧配給 控除罰則이 더욱 強化되고 있다.

이와같은 食糧統制 措置의 強化는 北韓의 經濟政策方向이 住民福

社 向上을 위한 合理的인데 있는 것이 아니고 體制의 경화 및 教條化 등 否定的인 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軍事優位 經濟政策의 固守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은 78萬名을 넘는 現役兵과 520萬에 달하는 豫備兵을 保有하고 있어 兵力規模面에서는 世界 第4位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軍事費 構成面에서는 단연 世界 第1位를 維持하고 있고 總人口 對 兵力規模 역시 戰爭中인 國家를 除外하고는 단연 第1位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이 무리한 兵力과 裝備를 維持하는 등 軍事優位政策 推進으로 建設에 投入될 資本과 人力이 相對的으로 減少되고 있음은 물론 住民福祉 向上과 個人의 餘暇善用마저 유보된 狀態에 있다.

특히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 發表로 南北韓 緊張狀態가 다소 緩和됨에 따라 北韓도 合理的인 經濟開發戰略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大部分의 기대와는 달리 北韓은 暗暗리에 軍事力을 增強시켜 왔고 浸透裝備, 땅굴 굴설 등 南侵準備를 前例없이 強化시키고 있어 體制改革이나 政策의 合理化 追求와는 거리가 먼 樣相을 보이고 있다.

(3) 勞働者, 農民에 대한 思想性, 政治性 強調

北韓은 生産手段의 社會化, 모든 經濟活動의 計劃化로 勞働者, 農民의 生産意慾이 極度로 저하된 狀態에서는 物的 補償에 의한 生産意慾 增大措置, 즉 物的 유인제도를 採擇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1950年代와 마찬가지로 勞働者, 農民의 黨性和 思想性에 呼訴하는 非物質的 措置들을 強化하고 있다.

더우기 最近에는 50年代, 60年代 또는 70年代에 推進했던 樣相보다 더한층 強化되고 經濟基準이 높아진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運動”, “80年代 速度創造運動” 등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展開하고 있는데 이는 體制改革이나 政策方向 轉換과는 完全히 배치되는 否定的인 現狀인 것이다.

(4) 政治·宣傳部門에 지나친 資金浪費 現狀

北韓은 金日成의 偶像化 作業과 金正日의 權力世襲을 위한 莫大한 國家豫算을 投入하고 있는데 主要 投資內譯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金日成 偶像化 構築物, 예컨대 北韓 各地에 建立된 3萬餘 個의 銅像을 비롯 金日成 主體思想塔, 개선문, 革命史蹟地 등 建設
- ② 인민대학습당, 창광원, 평양산원, 빙상관 등 住民 福祉向上을 표방한 非實用的 大規模 宣傳物 構築,
- ③ 金日成 생일행사, 9.9節 행사, 당창건기념행사 등을 準備하기 위해 100여만명의 勞働者를



6個月 以上 練習에 動員, ④ 各種 政治·宣傳行事 參觀을 爲해 外國人士의 대거 招請, ⑤ 金日成·金正日의 海外宣傳을 爲한 廣告費, 主體思想 研究小組 管理運營費 등 支拂 等이다.

#### (5) 外債波動 및 外交官 密輸行爲

北韓은 1983年末 現在 35億弗에 달하는 外債를 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償還負擔率이 높아 債務를 變제하지 못해 延滯波動을 빚고있고 外貨의 高갈로 인해 外交官의 密輸行爲, 추태행위가 世界 各곳에서 크게 빈축을 사고 있다.

北韓이 延滯波動이나 密輸行爲를 일으키게된 根本的인 原因은 對內 指向的인 自力更生原則을 強調, 對外經濟協力을 度外視해온데 따른 것이다.

## 4. 金正日體制的 經濟政策

### 가. 金正日의 經濟觀

一般的으로 指導者의 統治方向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教育·環境 등 그 社會的 背景을 分析하는 方法 以外에도 그의 統治哲學을 담은 演說·論文 등에서 가장 確實하고 直接的인 分析을 可能하게 해 준다.

最近에 이르러 北韓에서는 수편의 論文이 金正日 이름으로 크게 報道되고 있고 팜프렛으로 만들어 對內外에 크게 宣傳하고 있으므로

로 여기에 나타난 經濟關係 內容을 묶어 金正日의 經濟觀을 살펴 보겠다.

金正日이 發表한 最近의 論文은 3편인데 첫째는 1982年 10日 17日字 노동신문에 掲載한 “타도 제국주의동맹” 結成 56周年 記念論文 “朝鮮勞動黨은 영광스러운( E . D )의 傳統을 繼承한 主體型的 革命的 黨이다” 이고 두번째는 1982年 3月 31日 單行本 으로 펴낸 장문의 論文으로 金日成의 70回 生日을 記念하는 全國 主體思想 討論會에 보낸 “主體思想에 대하여” 라는 것이며 세번째는 勞動黨 機關誌 “근로자”( 1983年 5月號 )에 掲載한 “맑스·레닌주의와 主體思想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라는 論文이다. 이들 3편의 論文은 經濟問題뿐 아니라 政治, 思想, 外交, 軍事, 社會文化등 全 分野에 대해 言及한 것이며 北韓에서의 共產主義 發展過程으로 부터 當面한 問題點까지 망라한 것이므로 金正日의 統治理念을 集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以上の 論文에서 나타난 金正日의 經濟觀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 經濟開發 基本理念은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한 “自立的 民族 經濟建設” 에 두고 있다.

金正日은 그 理由로서 自體의 資源賦源을 自體의 目的과 必要에 맞게 合理的으로, 綜合的으로 利用할 수 있고 政治, 經濟, 軍事的으

로 강한 威力을 發揮할 수 있으며, 國際關係에서 自主權과 平等權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世界의 反帝 自主力量과 社會主義 力量強化에 能動的으로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經濟開發戰略은 自體의 資本, 自體의 資源, 自體의 技術範圍內에서 發展을 圖謀하고 모든 難關을 스스로 解決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은 經濟開發이 늦어진다면 自體의 모순이 增大된 다 하더라도 自體의 能力範圍에서 解決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다는 견해이다.

셋째, 經濟政策重點은 重工業을 優先적으로 發展시키면서 輕工業과 農業을 동시에 發展시켜야 한다는 主張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重工業 우선 일변도에서 表現上 약간 後退했다는 特徵을 지닌다.

네째, 國民福祉政策은 먹는 問題와 입는 問題 解決에 최우선을 두어 人民들이 安定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保障한다는 것인바, 이는 住民들의 衣食住 그중에서도 먹는 것, 입는 것에만 국한하고 住民의 文化生活, 레저生活 등과 같은 近代社會의 福祉問題에는 하등의 言及이 없음이 特異하다.

다섯째, 對外經濟協力은 社會主義國家와 新興勢力國家(第3世界 또는 非同盟圈 指稱)와의 協力에 注力한다는 것이다.

특히 金正日은 論文에서 “自力更生原則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은 결코 門을 닫아매고 經濟를 建設한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自立經濟는 다른 나라에 의한 經濟的 支配와 壓迫을 반대하는 것이 國際的인 經濟協調를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言及하고 있어 對外經濟協力 自體의 必要性은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正日은 西方先進諸國의 經濟力, 尖端技術, 經濟意識 등을 싫어한다기 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對外經濟協力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當面 經濟重點課業으로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第2次7個年 經濟計劃의 基本課業에서 提示한 內容과 같다.

以上 金正日의 經濟關係 主要論文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金正日이 생각하고 있는 經濟觀이라는 것이 金日成이 생각한 것과 本質的인 面에서는 差의 차이가 없고 극히 一部에 한해 世代的 差異, 時代的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金正日의 經濟觀이 金日成과 根本的으로 다를 수 없는 것은 金日成의 政治行蹟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 金正日이고 이미 構築해온 金日成의 偶像化實績, 金日成의 權威를 바탕으로 金正日 體制가 構築된 것이므로 다른 主義나 觀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金正日은 그의 論文에서 “수령의 思想밖에 다른 思想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수령님식 사업방법밖에 다른 사업방법과 作風이 있을 수 없다”고 言及하므로써 金日成의 생각을 答습하는 일을 合理化시키고 있다.

#### 나. 金正日의 經濟政策

金正日의 經濟政策은 金正日이 登場한 以後에 나타난 主要經濟政策을 편의상 金正日 經濟政策으로 간주한 것이지만 모든 經濟政策이 金正日의 直接關與, 指示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論述코자 하는 것은 嚴格히 따져 包括적으로 70年代 중반이후의 經濟政策이라 할 수 있고 좁게는 80年代 以後의 當面 經濟政策이라 할 수 있다.

지금 北韓이 推進하고 있는 當面 經濟政策은 두가지로 集約되는데 하나는 지난 1978년에 着手, 來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第2次7個年 經濟計劃이고 다른 하나는 勞動黨 6次大會에서 金日成이 提示한 “80年代 10大 展望目標事業”이다.

金正日은 以上の 두가지 經濟課業을 마무리짓기 위해 全力을 경주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經濟的 力量, 예컨대 資本이나 資源, 勞動力을 集中的으로 投入하거나 效率的으로 運營하려는 것이 아니고 非經濟的인 側面 즉, 思想性 強調, 教育·教養強化·社會統制強化 등으로 推進하려 하고 있다.

金正日は 金日成의 70回生日( 82.4.15 )前까지 第2次7個年 經濟計劃을 早期完遂해야 한다고 全住民을 督勵하였으나 別다른 成果가 없자 일단 來年末까지 同 計劃을 繼續 推進하되 지금까지와 같이 體制의 改善이나 政策方向의 合理的 變化없이 推進할 것으로 보여진다.

金正日의 이와같은 方針은 지난해 4月 勞動黨과 最高人民會議間에 가졌던 黨政合同會議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과 今年 3月 金正日의 主體思想에 대하여 라는 論文을 비롯 各種 指示事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黨政合同會議에서 한 金日成의 發言에는 두가지 의미심장한 內容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勤勞人民大衆의 刺戟的이고 創造的인 生活은 人民大衆의 利益을 損먹고 침해하는 不純分子들과 敵對分子들을 反對하는 鬪爭속에서 實現된다”라는 北韓内部의 갈등 및 모순에 대한 指摘이고 다른 하나는 “쌀은 곧 共產主義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社會主義 物質生活 分野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먹는 問題이다”고한 住民生活의 어려움을 間接적으로 表現한 것이다.

여기에서 金日成은 오늘의 北韓經濟 沈滯原因이 經濟的 側面에 있는 것이 아니라 非經濟的 側面 즉, 北韓住民들의 思想해이와 反動的 風潮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是正하기 위해 “人間改造”, “思想改造”, “社會改造”등 3大 精神改造運動을 展開해야 하고 먹는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自然改造”運動을 벌여야 한다고 提示하였다.

한편 金正日은 지난해 發表된 그의 論文과 各種 指示內容들을 통해 繼續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다그쳐 民族經濟의 自立性を 確固히 保障하고 人民經濟의 技術, 裝備를 끊임없이 現代化하며 모든 生産活動을 철저히 科學化해야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할 수 있으며 共產主義의 本質的 要素를 成果的으로 占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具體的 實踐課業으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나라의 資源과 技術에 의거 需要를 基本的으로 自體에서 解決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石炭, 鐵鑛石, 有色金屬 등의 生産 增大, 園藝資源開發, 山林資源의 綜合的 利用, 海洋資源 開發에 注力하여야 하고 輸入에 依存하는 原料, 燃料 系統은 自體原料, 燃料系統으로 改造해야 한다.

둘째, 落後된 技術을 先進技術로 改造하고 技術水準을 높이기 위해 生産施設의 綜合的 機械化 및 自動化를 實現하고 全群衆의 運動으로 技術水準을 높여야 한다.

셋째, 科學技術 發展과 生産 및 經營活動을 科學的 土臺위에 올리기 위해 새로운 科學分野 開拓, 生産單位 組織強化, 研究成果의 生産反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金正日의 이와같은 經濟指示는 70年代 後半부터 既存施設,

裝備의 老朽化 및 生産시스템의 舊型化로 原料, 燃料의 浪費와 人力의 過多投入 등 生産이 限界에 달해있자 特別한 資本投入 없이도 實踐할 수 있는 自體 資源開發·自體 技術向上 및 勞動力 極大化에 關心을 두게된 것이다. 金正日是 1981年 初旬 黨 全員會議에서 經濟部門 重點課業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 內容은 化學工業, 金屬工業, 輸出·大補修 등으로 表現되고 있다.

經濟重點課業에서 提示한 “化學工業”은 住民生活와 直結되는 消費品 生産原料의 適期供給을 위한 先行 措置이고 “金屬工業”은 機械 및 兵器工業의 繼續的인 發展, 輸出原資材 確保를 위한 先行 措置이며 “輸出”은 對外經濟協力에 대한 關心表明, “大補修”는 老朽化, 舊型화된 既存 施設裝備의 整備補強과 改修 등을 促求한 것이라 보여진다.

以上の 經濟重點課業을 통해 볼 때 金正日是 北韓經濟가 當面한 問題點이나 現實態, 즉 人民生活의 窮乏, 重工業 優先政策의 무리, 對外經濟協力 增進의 必要性, 生産基盤의 整備 必要性 등을 어느정도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正日이 當面 經濟現實이나 問題點을 認識하고는 있으면서도 經濟的으로나 經濟外的으로 이를 打開할 수 있는 속시원한 解決策을 찾지 못하고 있어 高심중에 있고,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는 政策이라는 것도 편협적이고 臨時方便的인 것에 불과하다.

80年代의 北韓經濟政策은 金正日에 의해 主導된 金正日政策이라



볼 수 있으나 70年代 以前까지의 經濟政策에 비해 特別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最近의 北韓經濟政策에서 나타난 몇가지 特徵적인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體의 原料, 燃料 源泉의 最大限 開發과 增産對策,

둘째, 投資規模가 큰 新規事業이나 懷妊期間이 긴 社會間接部門에 대한 投資抑制

셋째, 開放經濟體制를 否認하면서도 對外經濟協力, 특히 對西方諸國과의 經濟協力에 關心 增大

넷째, 技術엘리트의 重點育成보다 大衆의 全般的 技術水準 提高에 力點

다섯째, 專門性( Expert )보다 黨性( Red ) 重視 등이다.

以上の 5 가지 特徵을 통해 볼 때 北韓의 現 經濟政策은 從前에 비해 合理化되었거나 緩和된 것이 전혀 없다는데 意見이 一致된다.

또 北韓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들이 80年代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난 現狀이 아니고 金正日이 登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分명한 事實은 80年代 以後는 그 以前부터 있었던 問題點에 비해 보다 否定的이고 悲觀的이라는 事實이다.

80年代 以後에 부각된 北韓의 主要 經濟現實은 大體로 食糧不足, 原料 및 燃料不足, 外貨不足, 輸送 및 通信手段 不備, 技術不足

등 5大 不足現狀으로 集約된다.

以上과 같은 北韓經濟의 沈滯原因은 大體로 두가지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本質的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金正日 登場으로 인한 現時的인 것이다.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本質的 否定要因은 體制의 矛盾이나 政策의 不合理性, 施設裝備의 老朽 등 生産基盤에서 惹起된 問題點을 들 수 있으나 이 部門에 대한 論述은 省略하고 金正日 登場에 따른 問題點만 言及하고자 한다.

金正日 登場과 關聯된 北韓經濟의 새로운 問題點은 ① 金正日體制基盤 構築을 위한 豫算浪費 ② 3大革命小組를 통한 經營管理의 問題點, ③ 勞力動員의 限界性, ④ 經濟幹部의 金正日 系列化 등으로 集約되는 바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正日 後繼體制가 6次 黨大會를 契機로 陽性化되었다고는 하나 內面的으로는 많은 갈등과 不安要因을 지니고 있다.

그 代表的인 事例로서 흔히들 金日成 家系內의 갈등, 즉 金正日과 계모 金聖愛間, 金正日과 叔父 金英柱間의 不和를 내세우고 있고, 上層 權力構造 內部와 軍部內의 支持基盤 虛弱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런 問題들보다 훨씬 더 深刻한 問題는 下層 權力構造 內部와 人民大衆으로 부터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바로 이 問題 때문에 金正日의 經濟政策은 큰 誤謬를 범하고 있

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80年度以後에 준공된 인민대학습당, 창광원, 평양산원, 평양제1백화점, 빙상관, 주체탑, 개선문, 國際親善博物館 등 20여개의 소위 “大記念碑的 建造物” 北韓各地에 散在한 3萬餘個의 金日成 銅像 등은 모두가 金正日 治績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金正日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以上과 같은 非經濟的이고 非生産的인 部門에 엄청난 國家豫算을 投入하고 있다는 事實은 經濟開發 部門, 住民福祉向上 部門의 投資를 그만큼 줄여야 하는 結果를 招來한 것이다.

둘째, 3大革命 小組員의 지나친 干涉은 經濟實務陣과 生産勞動者들로부터 拒否反應을 招來케 하며 生産性を 減退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金正日은 자기의 支持基盤 擴大策으로 大學을 갓 卒業한 者나 卒業豫定者 中에서 小組員을 嚴選, 各級 工場·企業所, 協同農場 등에 3~5名으로 構成된 1個組 單位로 派遣하고 있다.

이들 3大革命 小組員들은 實務經驗이나 經輪이 없는 젊은이들로써 生産現場에서 일어나는 些少한 問題를 認識하지 못하면서 思想·理念을 내세워 나이가 많고 經輪이 쌓인 實務陣들을 일일이 干涉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意慾을 減退시키고 있고 生産活動에도 制約을 주고 있다.

셋째, 金正日 登場以後 勞動力 極大化를 위한 온갖 策動을 強化

하고 있다.

80年代以後 北韓은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運動을 提唱, 群衆運動으로 展開하더니 지난해 7月부터는 金正日의 提唱에 따라 “80年代 速度 創造運動”을 大々적으로 展開하는 등 住民들의 勞動力 搾取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내재, 經濟部署의 幹部와 地方機關의 人物들을 金正日 追從人物로 交替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나 副作用은 經濟管理에 否定的으로 作用하고 있다.

## 5. 北韓經濟體制 및 經濟政策變化 展望

### 가. 體制改革面

지금까지 金正日 登場以後 一部 肯定的인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全般的으로 볼 때 더한층 경직되고 否定的인 方向으로 흐르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그렇다면 北韓經濟體制가 앞으로도 이런 狀態로 持續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持續되지 못한다면 언제, 어떤 形態로 變化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北韓經濟體制的 持續性 與否는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否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現 北韓經濟體制가 지니고 있는 “生産遞減” 要因이 급속히 增大되고 있어 現體制的 固守는 經濟難局을 더욱 加速化시킬 것이다.

둘째, 經濟難에서 起因된 住民들의 不平不滿은 폭발직전에 놓여있는 바, 現在 淸津市 一圓의 勞農赤衛隊와 人民軍間의 衝突事件, 新義州 一圓에서 일어난 地方黨 幹部와 3大革命 小組員間의 衝突事件, 용양광산의 食糧폭동 事件 등 現 體制的 말기적 徵候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羅津港을 소련이 使用하고 있고 淸津港을 中共과 日本이 利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北韓의 體制變化를 促進할 것이다.

넷째, 體制變化要因을 抑壓하는 政策的 措置보다는 自然發生的인 變化促求 要因이 더한층 강하게 作用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北韓의 經濟體制가 언제 어떤 形態로 改革될 것인가 北韓의 經濟體制가 變化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明確하게 豫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84年을 기해 北韓은 第2次7個年 經濟計劃을 終了하고 1985年부터 새로운 經濟計劃을 推進하게 되어 있으며 1989年末까지는 金日成이 提示한 80年代 10大 展望 目標事業을 마무리짓는 해이므로 體制的 修正이나 改革이 必要하다면 이 契機를 契機로 단행할 可能性이 짙다는 結論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北韓의 經濟體制 變化는 計劃된 經濟計劃과는 關係없이 政治體制的 變化나 權力構造의 改編에 따라 斷行될 것이라는

側面도 있으므로 結局은 金日成의 死後나 金正日體制의 變化와 關聯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한가지 分明한 事實은 北韓이 體制를 改革한다 하더라도 中共에서 斷行한 것처럼 급격하게, 폭넓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소폭 改革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體制改革은 다음과 같은 範圍와 形態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첫째, 所有制度에서 相當期間 生産手段에 대한 私有化 斷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個人이 所有할 수 있는 生活日用品의 폭이나 種類가 크게 擴大되어 나갈 것인바 實例를 들면 農機具를 비롯, 自轉車·오토바이 程度의 私有化나 現在에는 全面 禁止된 一部 貴金屬類의 携帶가 可能하게 될 것이고 土地의 所有權은 認定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耕作權은 크게 擴大되어 現在의 터밭 30坪 水準이 百餘坪 程度로 擴大될 것이며 食堂, 이발소, 목욕탕, 소상점 등 편의봉사事業에 대한 個人經營權 程度가 認定될 것이다.

둘째, 經濟計劃의 伸縮性 問題는 지금 實施하고 있는 地方豫算事業이 보다 活性化되고 地方豫算事業 範圍가 擴大됨과 同時 現在의 中央機關의 計劃統制 機能이 크게 縮少될 것이다.

그러나 地方豫算 事業機能이나 地方行政機關의 經濟運營 機能이 크게 擴大된다 하더라도 中央計劃當局으로 부터의 統制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獨自性도 認定받지 못할 것이다.

세째, 企業의 獨自性和 管理制度의 改革面에서는 現在의 統制機能  
이 훨씬 緩和되어 獨立採算制 本然의 形態에 가까워질 것으로 豫  
測할 수 있다.

實例를 들면 各級 工場 企業所가 中央當局(國家機關)에 納入하  
는 國家企業 利益金の 規模가 縮少되고 따라서 企業所 自體에 留  
保된 фон드의 使用에 있어서는 企業自體의 裁量權이 크게 擴大될 것  
이다.

또 工場·企業所 單位別로 運營하고 있는 生活日用品 職場과 같  
은 自體事業 機能이 크게 增大될 것도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工場·企業所 單位에서 獨自的인 生産計劃이나 流通計劃은  
樹立할 수 없을 것이고 生産施設의 擴張, 生産品의 變更과 같은 機  
能은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네째, 利潤制度和 物質的 誘因에 대한 措置는 크게 기대되지는 않  
으나 現在 강행하고 있는 政治, 이데올로기에 呼訴하는 誘因制度는  
다소 後退되고 成果를 올린 勞動者에게 物質的 或은 金錢的으로 補  
償하는 傾向이 늘어날 것이며 休養所, 靜養所 등의 利用權과 補償  
休暇制가 크게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다섯째, 價格體制에 대한 變化 역시 短時日內에서는 큰 變化가 없  
을 것으로 豫想된다.

一般的으로 價格體系의 根本的 變化가 있으려면 企業體의 獨自性

이 確立되어 利潤을 追求할 수 있는 制度가 先行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需要供給機能이 市場을 中心으로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脈絡에서 보면 北韓이 以上の 體制改革 까지는 相當한 期間이 所要될 것이므로 短期間에는 價格體系의 큰 變化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の 國家唯一 公正價格制가 緩和되어 相當한 品目の 價格決定은 地方機關에 移管될 것이고 一部 輕工業製品에 한해서는 價格決定權이 末端 生産單位에 까지 委任될 可能性은 있다.

#### 나. 經濟成長 戰略 및 政策의 變化

金日成·金正日 政治權力體系가 持續되는한 北韓의 經濟體制에는 급격한 變化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經濟成長戰略이나 政策面에서는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먼저 北韓의 經濟成長 戰略은 지금까지 追求해온 量的인 成長戰略에서 質的인 成長戰略으로 轉換될 것이 豫想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浪費現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生産原料의 過多要求로 인한 資源浪費現狀

둘째, 勞働者·工場企業所 등은 낮은 目標量을 割當받기 위해 자신의 能力이나 自體의 能力을 과소평가하므로 인한 勞働力の 浪費現狀



세째, 生産코스트를 전혀 考慮하지 않은데서 오는 生産手段 全般의 浪費現狀

네째, 工場·企業所의 과다한 土地占有로 인한 土地의 浪費現狀

다섯째, 投資效率을 무시한 投資에서 오는 資本의 浪費現狀 등이  
다.

北韓이 經濟成長戰略을 質的 成長戰略으로 轉換한다면 量的 成長戰略에서 온 浪費現狀은 漸進的으로 解消될 것이고 그외에도 遊休 勞動力, 土地, 資本, 資源이 産業으로 流入되어 經濟開發 潛在力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勞動生産性的 增大, 投資效率의 增大 등으로 北韓經濟는 크게 活性化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量的 成長에서 質的 成長으로 轉換하려면 勞動者에 대한 物的 誘因制, 能力差等制가 先行되어야 하고, 企業에 대해서는 利潤制, 自由競爭制가 實施되어야 한다.

다음 北韓의 經濟政策 重點도 달라질 것으로 豫想되는데 豫想되는 樣相은 다음과 같다.

첫째, 重工業 優先政策이 緩和되고 輕工業과 農水産業에 대한 實質的인 投資가 增大될 것이다.

둘째, 現存 兵力 및 裝備水準에서 더 以上の 增加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財政에서 차지하는 軍事費 比重, GNP에서 차지하는 軍事費의 比重은 漸進的으로 縮少될 것이다.

세째, 自力更生原則은 變하지 않으나 對外經濟協力の 增大로 開放

化의 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네째, 날로 增大되는 國民들의 不平不滿을 根源的으로 解消시키기 위해서는 住民福祉政策에 關心을 두지 않을 수 없고 實質的인 投資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勞動時間의 縮少, 消費抑制 緩和, 休養·娛樂施設의 增大 등의 措置가 뒤따라야 한다.